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s Park, NJ 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해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310-6990(C)	C2 EDUCATION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914) 946-2324
통증 중재의학 이한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 희 (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종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파노)치과 콜롬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엘름hurst(시립병원 앞) (718)426-4343, (주자은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 American Landing 부동산 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제)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 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 (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 / 법인 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 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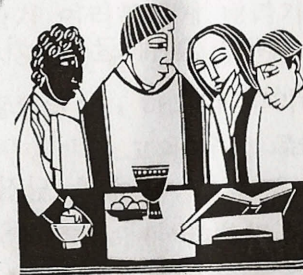
제1684호

2011, 10, 16

복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29주일

□ 입당송

(시편 17(16),6,8)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대영광송>

□ 제1독서 (민족들을 키루스 앞에 굴복시키려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5,1,4-6)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임금들의 허리띠를 풀어 버리며 문들을 열어젖히고 성문들이
닫히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나의 종 야곱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에게 칭호를
내린다. 나는 주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나 너를
무장시키니, 해 뜨는 곳에서도 해 지는 곳에서도 나밖에 없음을,
내가 주님이고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시편 96(95),1과 3,4-5,7-8,9와 10ㄱㄴ(◎ 7ㄴ))

◎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1.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2.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보다
경외로운 분이시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거니와, 주님은
하늘을 지으셨네. ◎
3. 주님께 드려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 들고 그분
앞뜰로 들어가거라. ◎

4.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입니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십니다.” ◎

□ 제2독서(우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1,1-5ㄱ)

1. 바오로와 실바누스와 티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
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2.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3.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4.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알니다. 5.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필리 2,15ㄴ,16ㄱ)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복 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15-21)

15. 그때에 바리사이드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16. 그러고는 저희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17. 그러니 스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오자
 20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21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 드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영성재송

(시편 33(32), 18-19)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목숨을 구하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시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10/16 8시	김 철중	이 준섭	이 회양	김 미수
11시	이 상식	양 명상	양 정남	이 영자
10/23 8시	홍 승표	김 민환	김 정옥	홍 명숙
11시	민 경구	송 호진	송 교식	손 속

복 사 : 이 종제 & 정 무원 김 찬 & 김 현민

봉헌자 : 김만석&박증환 가족 다음주 : 로첼진&이강민 가족

현금봉사 : 은총의 중계자 Pr 다음주 : 신비로운 장미Pr

운전봉사 : 윤 광석 다음주 : 박 지현

본당 뱅.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1,2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주님께(감사미사) : 김스텔라[영애] 가족봉헌

권마르코[용택](감사미사) : 부모님 봉헌

정시라[남연](생미사) : 사랑하올 어머니 Pr봉헌

김스텔라[지연](생미사) : 김미카엘 가족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허스테파노[문호](연미사) : 허스테파노 가족봉헌

김데레사[용자] 봉헌

박베네딕다[분도]기일(연미사) : 박바오로[증환] 가족봉헌

이요셉[명환](연미사) : 이안나 가족봉헌

박레오[수영](연미사) : 박안나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가족봉헌

연령회에서 봉헌(연미사) : 엄경섭, 윤바오로, 양나자로

김애기, 김경옥, 방창선, 박마리아, 최요한[한경],

김마리아[인순], 김루시아[정자], 허스테파노[문호]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성가

입당 : 로사리오기도 드릴 때 (성가 271)

봉헌 : 나의생명 드리니 (성가 210)

성체 : 성체 안에 계신주님(성가 198)

파견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가 62)



교회 소식

(1) 로사리오 성월

10월은 묵주기도의 달입니다. 가을을 맞아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묵주기도를 특별히 바쳐 주시기 바라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시다. 저녁 기도 후 묵주기도의 성월(기도서 30-31P)를 바칩시다.

(2) 꾸르실료 소식

남성 제33차 꾸르실료 피정이 이번주 20일(목)-23일(주일) 뉴튼 분도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본당에서 봉사자로 김철중(다니엘), 원수철(제럴드) 형제님과 수강자로 신희원(예레미아), 엄정환(루치아노) 형제님이 참가하며 본당신부님께서 지도 신부님 으로 참석 하십니다. 은총 많이 받고 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성령 세미나 소식

미동북부 성령세미나가 28일(금)-30일(주일) 까지 마리안슈라인 에서 있습니다. 우리본당에서 조미선(안젤라)자매님과 김종철(사도요한) 형제님이 참가합니다. 은총 많이 받고 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구역회

올해는 신앙공부를 합니다. 모든 신자 분 들은 구역회에 참석합니다. 10월달 주제 : “신자들의 영성(신심) 생활”

① 영성생활이란? ② 영성생활의 목적 ③ 영성생활과 기도

(5) 확대 사목회의

이번 주 19일(수) 8시미사후 친교실 에서 있습니다. 사목의원, 구역회장 단체장님 들은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6) 본당 모임

● 중부웨체스터 구역회가 오늘(주일) 오후 5시 이상빈(아브라함) (914) 527-5060 구역장님 댁에서 있습니다.

● 꾸리아 월례회의가 오늘(주일) 11시 미사 후 친교실 에서 있습니다.

● 연령회 모임이 다음주(주일) 12시30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대건회 가을소풍을 자녀들과 함께 다음주(주일) 8시 미사 후 오차드 비치 로 갑니다. 대건회원 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이번달(10월) 커피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브롱스 및 맨하탄

구역입니다. 다음달(11월)은 동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니다.

하느님, 외 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040.00 (성모피정 \$490 포함)

감사헌금 : \$ 3,000.00 (공연수 가족) \$500.00 (허실비아 가족)

교 무 금 : \$ 1,260.00 교육헌금 : \$ 3,822.00

이종연(10) 최구남(7-9) 정순조(완남) 박진혁(9) 김종철(9-10)

하이터치 친구

나는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오는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집안 환경도, 나이도 비슷한 할머니들의 모임이다. 만나서 먹고, 웃고, 실없는 소리하다가 헤어지는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그저 즐거운 모임이다. 그중 한 친구는 뉴욕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사는데 채소도 가꾸고, 닭도 치면서 시골생활을 한다. 젊었을 때에는 도시에서 사업을 했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서 조용히 살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생활도 하려고 그렇게 시골로 들어왔다고 한다. 우리 들은 그런 시골, 한적한 곳이 좋아서 그 친구네 집에서 주로 모인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가 좋아서 그 친구네 집에서 모인다. 그 친구는 우리가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점심준비를 한다. 뜰에 나가서 이것저것 뽑아다가 무치고, 국 끓이고 그리고 흰 밥에다 잡곡밥까지 지으면서 분주하다. 우리들은 그 친구가 수고하는 것이 하도 미안해서 김밥 사가지고 간다고, 또는 나가서 아무거나 먹자고 해도 그녀는 막무가내다. 덕택에 우리들은 철따라 제철음식들을 잘 먹는다. 봄에는 봄나물, 초여름에는 상추쌈, 여름에는 풋고추, 호박전, 가을이 되면 고구마에다, 호박잎 찐 것 등등...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여름에 말리어 두었던 시래기로 수구하게 끓인 된장국을 먹는다. 도시에서 잘 못 먹는 그런 시골 음식이 하도 좋아서 우리들은 생전 굶은 사람들 마냥 허겁지겁 먹어대곤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애초에 음식을 넉넉히 했다가 우리가 돌아올 때면 싸주기까지 한다. 그 친구의 삶은 무척 소박하다. 우리들이 가면서 무슨 물건이던지, 먹을거리를 가져다주면 기쁘게 받아두었다가 자기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준다. 언젠가는 그 집에 커피팟이 없어서 하나 사다 주었는데 다음에 가보니 안 보인다. 그 동네에 새로 살림을 차리는 한 젊은 부부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 친구네 집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들만이 아니다. 그 근처에 불일 이 있어서 갔다가 들려서 차를 한잔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고, 휴가를 얻어도, 방학이 되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며칠씩 와서 지내기도 한다. 언젠가는 가서 보니 아프리카에서 오셨다는 한 수녀님이 그 집에서 휴가를 보내시는 것을 보았다. 그 친구는 항상 환하게 웃었고, 그 친구가 무슨 불평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요즘 하이터치(high touch)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인간성을 강조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유대를 소중히 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는 상사를 하이터치 리더라고도 한다.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그 친구야말로 진정한 하이터치의 사람이라고 하겠다. 우 몽은